

〈특별기고〉

日韓共同統計學會議에 參加하고서**

— 故 朴贊癸教授를 回想함 —

丘 本 正(Okamoto Masashi)*

1. 序

日韓共同統計學會議는 韓國側은 李載昌 高麗大學 教授, 日本側은 脇本和昌(Wakimoto Kazumasa) 岡山大學 教授의 協力에 의해서 1982年 7月에 日本國 岡山市에서 열렸다. 이 企劃은 그 後에도 持續되어서 今일에 이르기까지 8年間に 걸친 韓日兩國의 統計學의 交流의 原流로 될 것을 當時의 나는 確信을 가지고 豫見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企劃의 中樞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이 交流를 結實시키고 싶어서 過去 6回의 會議에 빠짐없이 參加해 왔다. 第6回 會議가 지난해 7月에 열린 機會에, 이때까지의 經過를 되돌아 보고자 한다.

2. 過去 6回까지 會議의 概括

第1回會議는 前述한 바와 같이 1982年 7月16~17日, 岡山郵便貯金會館에서 열렸다. 岡山市가 선택된 것은 組職委員長인 脇本(Wakimoto)教授의 근무지였기 때문이다. 開會辭는 小川潤次郎(Ogawa Junjiro) 日本統計學會長과 崔至薰 韓國統計學會長 2인이 하였다. 招待講演은 韓國側에서(以下존칭생략) 白雲鵬, 尹起重, 金載周의 3氏, 一般講演은 韓國 6, 日本 13, 計 19題이었다. 出席者는 韓國에서는 朴贊癸, 尹錫範, 朴聖炫 氏 등을 포함해서 計 12名, 日本側은 30余名이었다. 公用語는 英語로 定하고, 次回를 서울에서 열 것을 결정하였다.

第2回 會議는 다음해 1983年 7月 28日~30日, 會議場을 韓國으로 옮겨서 서울, 延世大學에서 열렸다. 開會辭는 崔至薰 會長과 日本側을 代表해서 工藤昭夫(Kudo Akio) 九州大學 教授가 하였다. 招待講演은 藤井光昭(Hujii Mitsuaki), 森棟公夫(Morimune Kimio), 本人의 3人, 一般講演은 日本 13, 韓國 16題, 日本側의 參加者는 18名, 第1回보다 講演數가 늘었기 때문에 會期는 2日半으로 늘어났다.

第3回는 2年後인 1985年 7月 26~27日, 會議場은 日本으로 되돌아와서 京都大學會館에서 열렸다. 開會辭는 林知己夫(Hayashi Chikio) 日本統計學會長과 崔鍾碩 韓國統計學會副會長

* 追手門學院大學, 大阪大學名譽教授

** 본 기고문은 日語로 된 원문을 白雲鵬교수가 번역하였음.

의 2인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韓國側의 招待講演은 裴道善, 李載昌, 朴贊癸, 許文烈의 4氏, 一般講演은 韓國 17, 日本 24, 其他 2題로 크게 增加하였다.

第 4 回は 다음해 1986年 7月 10~12日, 會議場은 다시 서울로 되돌아 가서 世宗호텔에서 열렸다. 開會辭는 韓國과 日本 각각의 統計學會에서 尹錫範, 林知己夫 會長이 말하였다. 招待講演은 日本側은 赤池弘次(Akaike Hirotosugu), 野長一郎(Asano Chooichiro), 杉浦成昭(Sugiura Nariaki), 佐和隆光(Sawa takamitsu)의 4氏, 韓國側은 白雲鵬, 朴弘來의 2氏, 一般講演은 日本 14, 韓國 26題로 前回와 거의 同數에 그쳤다. 出席者數에 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第 5 回 會議는 지금까지의 經過와 똑같이 2年이 지나서, 1988年 7月 17~19日에 東京竹橋會館에서 열렸다. 開會辭는 林知己夫(Hayashi Chikio) 大會組職委員長(放送大學教授)와 朴贊癸 韓國統計學會長이 말하였다. 張錫煥, 金鍾浩, 尹錫範, 申漢豐, 朴聖炫의 5氏, 日本側은 田中豐(Tanaka Yutaka), 馬場康雄(Baba Yasuo), 和會擘(Wago Hajime), 三浦良造(Miura Ryoza)의 4氏, 一般講演은 韓國 15, 日本 24, 其他 1題였다. 出席者數는 韓國 28名, 日本 44名, 리셉션에는 中村隆英(Nakamura Takafusa) 日本統計學會長도 出席하였다.

第 6 回 會議는 다음해 1989年 7월 10~12日에 釜山市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다. 開會辭는 李載昌 韓國統計學會長代行과 赤池弘次 日本統計學會長에 의해서 진술되었다. 招待講演은, 日本側은 竹內啓(Takeuchi Kei), 澁谷政昭(Sibuya Masaaki), 仁木直人(Niki Naoto), 垂水共之(Tarumi Tomoyuki)의 4氏, 韓國側은 金炳千, 吳興根, 田明植, 孫重權의 4氏였다. 一般講演數는 日本 27, 韓國 25題로 過去最大의 規模로 되어 實際的, 會期 2日로는 研究發表에 充分한 時間이 취해지지 않음으로, 第二 會議場을 併行시키게 되었다. 出席者數는 日本側 40名, 韓國側은 180名이었다.

以上으로 6回의 會議에 관한 客觀的인 데이터를 제시하였으나, 一般講演의 題數는 會議의 프로그램에서 켜진 것이다. 따라서 次席에 의해서 取消된 講演을 포함하고 있고, 當日에 追加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충해서 말해 둔다.

3. 會議에 관한 感想

會議에 관한 主觀的인 感想을 적어보려다.

第 1 回 會議에서는, 韓國의 많은 統計家에 한꺼번에 紹介되어서 당황하였다. 나이드신 분이 여러분 있어서 그중의 많은 분이 훌륭한 日本語를 말씀하시어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하였다. 제일 먼저 對話한 相對가 中央大學校 政經大學의 朴贊癸 教授였다. 韓國統計學界 속에서 溫厚한 意見調整者 役割을 하는 사람이라는 感을 받았다.

다음에 얘기한 사람은 高麗大學校의 白雲鵬 教授였다. 日帝下의 水原高農을 卒業했으며, 第 2 次 大戰 중에는 大阪(내가 낳고 자란 都市)의 第 23 部隊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교수에게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韓國에서는 年齡을 옛날 식으로 세고 있으므로, 지금 61歲라고 듣고, 불과 1년 차이에

불과하지만 나보다 年上의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즐거웠다.

내 자랑같지만, 延世大學校 尹起重教授의 講演『The Current Status of Statistical Education in Korea』와 내 講演『Present State of Mathematical Statistic in Japan』와는 중부되어 이 會議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貢獻하였다.

두 사람의 發表後, 떠들썩한 討論이 계속되고, 韓國의 大學入試委員長을 맡고 있었던 崔至薰會長이 한국에서의 大入學力考査에 關한 實情을 報告하였다. 『韓國사람은 잘 알고 있으므로』라고 하며 日本語로 얘기하니, 韓國의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므로 韓國語로도 되풀이해 주시요』라고 하는 注文이 나와서 大笑하였던 것이 생각난다. 이때, 내가 報告한 것은 日本에서는 1年間에 배출되는 統計學의 學位의 수는 『博士 9人, 修士(한국의 碩士)33人』이라고 말하였는데, 現在도 거의 變化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東京工大의 藤井光昭(Hujii Mitsuaki) 教授의 研究室에 留學하여 大學院 博士 課程에 在學하고 있던 權溪花양이 會議의 重要 장면에서 通譯을 맡아 주었던 努力을 평가하고 싶다.

이와같이 해서 第1回 會議는 大成功이었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 내 恩師 小川潤次郎(Ogawa Junjiro) 博士가 空港에서의 送迎 등 이 會議에서 수고하셨던 탓인지, 그 직후에 心臟의 發作을 일으켰던 것이다. 지금은 回復되었지만 옛날의 健康은 잃고 말았다.

第2回 會議에서는 전날부터 서울의 올림픽아 호텔에서 宿泊하였다. 新式이고 훌륭한 호텔의 窓 커튼을 열면, 눈 앞에 北岳이 우뚝서서, 산의 斜面에 高級住宅이 点在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鹽谷實(Siotani Minoru)夫妻, 森棟始와 같이 朴贊葵 教授의 車로 韓國 레스토랑 大苑閣에서의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 白雲鵬 教授와 江陵大學長으로 있던 崔至薰會長과 面會하였고 崔春鎬 漢陽大學 教授와 朴弘來 서울大學校 教授한테 紹介되었다. 日本側은 統計學研究者의 일부분이 이 會議에 參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나 韓國側에서는 學國的으로 參加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會議場인 延世大學에는 버스로 가게되었다. 同 大學은 1985년에 開校 100年이라고 하므로 東京大學 정도의 歷史이다. 프로테스탄트 教團의 創設에 의한 西洋風의 建築洋식이 珍奇하였다. 安世熙 延世大學校 總長의 인사말이 있었던 것은 意外의 놀라움이었다. 韓國側의 熱意가 感知되었다. 壁面에는 몇개의 額子가 걸려 있었고 글은 모두 다 漢子였다. 한글의 字體는 藝術로는 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다.

會議場에서의 講演에 대한 感想: 韓國側의 發表者에는 젊은이가 많았던 것이 第1回 때와 다른 点이었다. 훌륭한 英語도 日本側의 不安하게 보이는 英語 솜씨를 壓倒하였다. 많은 사람이 美國에 留學하여, 學位를 取得한 努力의 보답이지만, 留學의 經驗이 없는 사람까지도 日本人보다 잘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余談: 한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韓國의 젊은 사람에게 英語로 質問하였다. 『박을 로마자로 Park, 북은 Buk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같은 ㅈ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았으나 英語가 통하지 않았다.

第3回 會議의 特徵은 미국에서의 參加者를 받아들인 것이다.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온 D. R. Whitney 博士와 또 한사람이 論文을 發表하였다. 前者는 유명한 Mann-Whitney

檢定の 共著者の 한 사람이고, 李載昌 博士의 留學時의 指導教授이기도 하다. 個人的인 對話中에 博士가 『여러가지 應用과 連絡을 취하고 있다』 말씀하였으므로 『應用은 중요하지만 일손이 작으면 어렵다. 내 教室에는 스태프가 4人 밖에 없다.』라고 변명하였더니, 博士는 『자기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하여 逆襲을 당하였다.

個人的인 얘기도 되지만, 猪原正守(Ihara Masamori)氏와 나의 共著論文 『Partial Gauss Newton Algorithm and its Application to Factor Analysis』에 대한 反響이 있었다는 것이 기뻐다. 因子分析의 專門的인 問題點이 質問되었다. 因子分析은 理論的인 面에서도 方法論的인 面에서는 많은 問題를 남겨 놓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말해서 多變量分析의 方法論은 아직 充分하게는 開發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나의 意見이다.

서울大學의 宋文燮, 全鍾雨 兩博士와 對話한 것도 印象에 남는다. 『서울大學에서는 統計學은 지금으로서는 計算機學보다도 勢力이 있으나, 곧 우선 學生數로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全國的인 傾向이기도 하다』라고 들었다. 日本에서는 勝負는 벌써 전에 끝이 나버리고 있다. 그러나 진다고 알고 있어도 學門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中國科學院應用數學研究所의 친구인 劉璋溫氏와 마주친 것은 意外였다. 中國사람도 이 會議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第4回 會議에는 妻를 同伴하였다. 서울의 印象에서 3年前과 다른 것은 空港內에 英語가 많고, 漢字도 여기저기 조금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前回때는 한글로 壓倒되었던 것이었다. 組職委員인 成均館大學의 許文烈 博士의 迎接을 받아 小型 버스로 世宗호텔로 向하였다. 호텔 窓에서는 이번에는 南山이 눈앞에 있고 호텔앞에 깨끗한 도시 건물군이 보였다. 卡特 일파티가 20時부터 호텔의 4층에서 열렸다. 前回와는 달리 全員이 參加하였으므로 氣분이 느긋했다.

實質的인 會議에 들어가서, 因子分析이 여러번 登場하였다. 우선 赤池 博士의 招待講演은 因子分析에서 主成分分析으로 들어갔다. 나 自身은 一般講演에서 發表하고 계속해서 卡特릭 醫科大學의 宋惠郷 教授가 因子分析의 應用을 論하였다.

11日의 Banquet에서는 李載昌 博士의 인사말에 感銘을 받았다. “第2回 會議는 貧弱하였으나, 時間과 더불어 韓國側의 態勢는 強化되고, 資金面에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부터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와 IASC(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의 會員을 늘이고 싶다. 來年 9月, ISI 第46回 大會가 東京에서 열리는 機會에 Satellite Meeting을 서울에서 연다. 언제인가는 ISI 本 會議를 여기에서 하고 싶다. Far Eastern Journal of Statistics를 발간하고 싶다. 韓國의 學生은 지금까지 美國에 留學하였으나, 今後는 一部를 日本에 留學시키고 싶다.”

朴贊葵 教授宅에서 大阪大學 白旗愼吾(Shirahata Shingo) 博士, 내 妻와 같이 招待된 것도 있을 수 없다. 서울에서 南으로 車로 約 20分 남쪽에 산이 솟아 보이는 근처에 高層아파트가 늘어서 있었다. 10층, 넓직한 집이었다. 金玉星 婦人의 손 料理를 많이 대접받았다. 兩班의 風習이라고 하는 松餅이 珍奇하였다. 白색과 썩색의 작은 경단은 새 모양을 하고 두 개로 한 組를 이룬다. 돌아오는 길에 漢江을 건널 때의 夜景은 황홀하였다.

許文烈 博士에게 파티때 汝矣島를 보고 싶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였더니 그대로 實現

되고 말았다. 一般講演을 두 개 參席하지 못하고 車로 國會議事堂을 보고 日式 레스토랑에 들어가 초밥을 대접받았다.

12日 午前에 會議는 끝나고, 午後는 서울 南部의 韓國民俗村의 見學이 豫定되어 있었다. 組職委員의 許, 宋, 兩 博士가 또 다시 案内役을 맡았다.

日本人 一同은 釜山으로 移動하여 慶州를 訪問하였다. 나는 崔在龍 博士에 招待되어 東亞大學校에서 세미나를 하였다.

第5回 會議의 會議場의 竹橋會館에서는 두 개의 日韓會議가 마주쳤다. 또 한쪽은 有機化學으로 내 大阪大學의 同僚 2인과 로비에서 만나 『統計쪽이 盛大하군요』라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은 第1回의 會議였으므로, 『이 쪽은 第5回입니다』하고 가슴을 폈다.

朴贊癸 會長은 『統計가 工業에 貢獻할 것을 希望하여, 이 會議가 오래 계속될 것을 期待한다』고 말하였다. 林知己夫(Hayashi Chikio) 會長은 組職者로서 인사를 한 후 『Principle and Strategy of Data Analysis』라는 題目아래 講演을 하여, 研究面에서의 指導를 계속하겠다는 意慾을 보였다.

韓國側의 두개의 講演이 異色の이었다. 尹起重 教授는 延世大學의 MBA 論文中에서 統計的으로 잘못이 50% 된다는 調査結果를 發表하였다. 北韓의 經濟모형이라는 尹錫範 博士의 意慾의인 研究에 대해서 『마치 SF(scientific fiction)이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나왔으나, 著者は 웃기만 하고 굳이 否定하지는 않았다.

이번 回의 特徵: 韓國側의 講演은 師弟의 共著가 많았고, 모두 다 弟子가 發表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順調롭게 커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統計學會에서 이 會議에의 日本의 몇사람의 功勞者에게 贈呈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靑磁의 병을 贈呈한 것은 실로 榮光이었다.

朴贊癸 會長을 中食에 초대했다. 氏의 얘기로는 서울의 統計學者들은 定期的으로 모여서 테니스와 카드놀이로 親交를 깊게 하고 있고, 氏와 같은 年輩에도 불구하고 그 中心에 있는 모양, 日本의 學者들이 四分五裂되어 있는 것과 比較해서 부럽게 생각하였다. 이것이 氏와의 最後의 會談으로 되었다.

第6回 會議는 서울을 떠나서 釜山으로 옮겨졌다. 日本에서의 會議場은 岡山, 京都, 東京과 같이 東으로 向하고 韓國에서의 會議場은 南으로 向해서 다같이 거의 終點에 到達했다.

空港에는 東義大學校의 姜二中 教授와 姜萬基氏가 마중나왔고 藝術的이고 古風의 스타일인 코모도 호텔에 案内되었다.

Welcoming Party에서는 日韓兩國의 統計學會會長 외에 張新奎 韓國統計協會會長도 인사하였다. 파티에서의 名札에 관한 感想, 日本人은 普通대로 漢字와 로마자로 좋지만, 韓國人의 경우는 한글에 부치는 文字는 로마자보다는 漢字의 편이 읽기 쉽다.

會議의 開會辭에서 李載昌 博士가 『朴贊癸 會長은 1월에 암으로 死亡하였다』라고 말한 것에 놀랐다. 1933年 4월에 出生하여 만 55才로는 너무 이르다. 韓國統計學界는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

Reception에 韓國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의 李康雨局長이 出席한 것에는 놀라왔다. 이 정도의 官吏가 일부러 汽車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日本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統計學의 重要

성에 대한 認識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썼지만 이 會議의 組織者의 熱意와 實力의 탓인가.

회의가 끝난 후 林(Hayashi), 赤池(Akaike)氏 등과 같이 나도 海雲臺에 있는 日式 레스토랑에 招待되어, 日本에서도 좀처럼 만나볼 수 없을 정도의 싱싱한 회를 맛보았다.

以上이 6회의 會議에 대한 내가 본 狀況이지만, 나는 이들 모두에 出席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4. 끝으로

日本은 日韓共同統計學會議 뿐만 아니라, 中國과의 사이에도 2 國會議『日中統計學심포지움』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3회 開催되어, 第1회는 1984年 北京에서 시작되어, 第2회는 1986年 福岡(九州), 第3회는 1989年 東京이라고 하는 經過이다. 出席者數는 日韓의 경우와 거의 같으나 會期는 第1회는 10日間, 그 以後는 6日間과 같이 느긋하다. 나는 이 3회의 모든 것에도 또 출석하였다.

이들 두개의 2國間會議에 대한 나의 熱誠은 같은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中國과 韓國이라고 하는 과거의 일본의 恩師에 대한 敬意이고, 둘째는 統計學의 先進國으로서의 日本은 開發途上國을 應援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意識이다.

위의 둘째 근거에 대해서, 6회의 會議에서의 體驗에서 나는 日韓兩國의 差는 急速하게 縮少되고 있는 중이라고 느끼고 있다. 韓國의 많은 大學中에 統計學科가 있어서, 多數의 專門家를 養成하고 있고, 教授團의 많은 분이 美國에 留學해서 統計學의 數學理論에서 데이터 解析에 이르는 폭넓은 教育을 받고, 母國에 돌아와서 後輩에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日本의 大學에는 學部水準에 있어서의 統計學科가 없고, 大學院水準에서 작은 센터가 國內에 散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最近에 發足한 統計數理研究所의 大學院이 唯一한 例外이다. 研究者의 專門의 폭이 좁다는 것도 문제이다. 統計學의 研究教育體制의 整備의 必要性이 얘기되면서도 全然 進展이 없는 狀況이다.

그러나 兩國의 比較라고 하는 작은 次元이 아니고, 우리들 統計學의 學問으로서의 發展을 위해서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넓게 人類社會의 幸福에 寄與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故 朴贊燾 教授의 평안한 冥福을 빌고 이 小文을 끝내고 싶다.